

체형과 신체이미지가 의복유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정수진¹⁾ · 추미선²⁾

¹⁾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²⁾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The Effects of Somatotype and Body Image on Apparel Fashion Orientation

Su-Jin Jeong¹⁾ and Mi-Seon Chu²⁾

¹⁾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²⁾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body image and apparel fashion orient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somatotype. And the paths for the apparel fashion orientation affected by these variables were also analyzed. The data for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of 210 male and 180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subjective somatotype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different from objective somatotypes an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high degree of somatotype distortion compared to male college students. The body image was composed of three factors, 'interest in appearance', 'concern about weight' and 'satisfaction in appearance'.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highly interested in appearance and weight with exhibiting high interest in appearance for the persons who have a thin somatotype and in weight for the persons who have an obesity somatotype, respectively.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fashion than male students. The higher interest in appearance, concern about weight and satisfaction in appearance persons have, the higher degree of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fashion innovativeness and confidence in apparel the persons showed. Thus, female students, thin somatotypical persons or standard somatotypical persons were highly interested in appearance. The persons who are more concerned about appearance showed the high degree of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fashion innovativeness and confidence in apparel. And the persons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appearance exhibited high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and confidence in apparel.

Key words: somatotype, apparel fashion orientation, leadership in fashion opinion, fashion innovativeness, confidence in apparel

1. 서 론

체형은 외모를 판단하고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비주얼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으로 여겨지길 원하고 있다. 체형을 포함한 신체적 외모는 대인지각 시 매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Burger(이인자 외에서 재인용, 1993)에 의하면 여성을 평가할 때 체형이 전체 이미지의 50%를 좌우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체형은 신체적 매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매력은 아름다운 체형이나 신체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미의 기준이 되는 유행체형은 그 사회의 전체적인 미의 개념이나 가치관 등과도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지나치게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미의 기준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과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 특히 외모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실제 체형 및 신체이미지와 이상적인 이미지와의 차이가 생기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통해 자신이 인지하는 체형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이상적인 체형에 근접하여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의복은 단순히 체형 보완이나 외모 향상을 위한 도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의복의 선택과 착용은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시대에 유행하는 의복은 그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상적인 체형으로 생각하는 체형을 강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형에 대한 인식과 신체이미지는 의복 유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orresponding author; Mi-Seon Chu
Tel. +82-55-751-5986, Fax. +82-55-751-5986
E-mail: mschu@gnu.ac.kr

종래 체형인식을 통한 지각체형과 이상체형 등을 비교한 연구(남윤자, 이승희 2001; 이정순; 2007; 이정임, 남윤자, 2003)와 체형인식에 따른 신체만족도 연구(이정희, 2007), 신체이미지를 변인으로 사용한 연구(송경자, 김재숙, 2005; 이정순, 한경희, 2007; 홍금희, 2006; Cash, 1990), 체형 또는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련성 연구(조윤주, 이정란, 2004; Shim 외, 1991)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체 계측을 통한 체형연구 뿐만 아니라 체형인식 및 신체이미지를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의복행동 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의복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인 체형인식과 신체이미지를 의복유행과 관련시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의 성별과 체형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의 차이 및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 성별, 체형, 신체이미지를 의복유행성향과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써, 이들 변인 중 어떤 변인이 의복유행성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체형과 신체이미지

체형을 평가하는 측면에는 실제 계측치에 의한 객관적 체형,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체형, 사회, 문화적 가치기준 등에 의해 변화되는 이상적 체형 그리고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체형이 있다. 성별, 연령 등에 따라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은 차이를 보이는 데, Mable et al.(198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가 1%인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15% 정도였다.

체형인식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비교한 남윤자, 이승희(2001)와 박유미(200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보다 신체에 불만족 경향이 높았고, 특히 한국여대생은 하반신 항목에서 불만족스러운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미 여대생 모두 신체계측치가 크고 길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만족은 실제체형보다 인식체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남윤자, 이승희, 2001). 홍금희(2006)는 외모매력 정도가 클수록 또한 신체비만도 지수(BMI)가 낮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으며, 심정희, 박수진(2007)은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이 마를수록 신체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젊고 체형이 날씬할수록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조윤주, 이정란(2004)은 자신의 체형에 자신이 없을 때 의복을 통하여 체형의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 상으로 자아개념의 근본적 요소이며(조선명, 고애란, 2001),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그와 연관된 느낌과 태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체가 성장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증대되거나 개인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함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다(Meijboom et al., 1999). 의복은 개인 환경의 가장 근접한 면을 나타내는 신체적 자아의 확장으로 신체이미지를 강화 또는 변화

시키는 기능을 가지며(Compton, 1964; Roach & Eicher, 1992)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의복 선택과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친다(Creekmore, 1974).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은 그 시대의 이상적인 미와 유행 등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으며(Kasier, 1990), 외모와 신체적 경험의 주관적인 묘사로 형성되므로 변화되거나 왜곡되기도 쉽다. 특히 신체이미지는 신체 치수 또는 형태가 변화되거나 비정상적인 관심이나 걱정할 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심리 상태 또는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소비자의 의복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된다.

김광경 외(2001)는 외모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며, 자신의 신체가 매력적이고 운동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복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몸매를 강조하는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송경자, 김재숙(2005)은 자신을 마른체형으로 인지할수록 의복과시성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이 적을수록 자아개념이 높다고 하였다.

2.2. 의복유행성향

유행은 특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에게 수용되어 받아들여진 지배적인 스타일로, 유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의복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것처럼 의복은 유행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유행을 선도해가고 있다.

유행선도력이란 유행과정에서 혁신적 상품의 수용이나 대중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힘이라 정의되며, 이러한 특성을 강하게 가진 소비자를 유행선도자라고 한다(배정주, 1989). Rogers(1983)는 유행선도력을 혁신성과 의사선도력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행혁신자는 새로운 스타일을 가장 초기에 채택하고 착용함으로써 유행스타일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며, 유행의견선도자는 새로운 유행스타일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유행추종자가 그 스타일을 채택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유행의견선도자는 반드시 유행혁신자가 되지는 않는다(강혜원, 1996).

Kim and Schrank(1982)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유행리더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행혁신성 및 유행의견선도력은 변화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조윤정, 고애란(2001)은 유행선도력에 따른 소비자 세분집단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추구혜택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혁신성이 높을수록 자아표현, 개성 및 브랜드를 중요시하며, 유행에 무관심할수록 가격을 중요시하고 점잖은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행혁신성 및 유행의견선도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유행의복품목 소유 및 유행활동 경험의 유행선택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추종자 및 무관심 집단에 비해 의복 구입비와 구입량이 많다고 하였다.

이영윤, 강혜원(1982)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

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는 유행관심과 유행스타일 선호와 정적 상관관이 있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높은 유행관심을 보이며, 유행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정찬진, 김옥진(1988)은 젊은 연령층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행수용도도 높다고 하였다. 이연희(1995)는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의복과 신체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송경자(1998)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인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많고 심리적으로 의복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심정은, 고애란(1997)은 의복과 외모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관심을 끌기 위해 유행하는 의복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Yoon et al.(2009)에 의하면 신체이미지와 의복관여는 유행의견선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이미지는 의복관여를 매개로 유행혁신성이 유의한 간접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신체이미지는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인으로 주목 받아왔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연구문제1 : 객관적인 체형과 주관적인 체형의 분포와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2 : 성별 및 체형에 따라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에 차이를 규명한다.

연구문제3 : 성별, 체형 및 신체이미지가 의복유행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3.2. 측정도구

3.2.1. 체형

객관적인 체형과 주관적인 체형으로 구분하여, 객관적인 체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키와 몸무게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BMI(kg/m²)지수를 산출하였다. BMI 분류기준(보건복지부, 2006)에 의해 BMI지수가 18.5미만이면 마른체형, 18.5~24.9이면 표준체형, 25.0이상이면 비만체형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인 체형은 피험자가 인지하는 본인의 체형을 매우 마른, 마른, 표준, 비만, 매우 비만의 5단계로 측정하였고 매우 마른, 마른은 마른체형, 비만, 매우 비만은 비만체형, 그리고 표준체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체형이 측정치인 객관적인 체형보다 의복관련 변인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남윤자, 이승희, 2001)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체형을 체형의 변인(이정희, 2007)으로 사용하였다.

3.2.2. 신체이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등과 관련되어 형성되는 주관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신체이미지는 Cash(1990)의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설문문

항인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의 하위척도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조선명, 고애란(2001)과 홍금희(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3. 의복유행성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복유행성향은 의복유행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및 유행스타일의 선택과 착용 등과 같은 의복유행에 관련된 태도를 의미한다.

의복유행성향은 선행연구(박정은 외, 2005; Shim 외, 1991)에서 사용하여 신뢰도가 검증된 의복행동 하위항목인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의복자신감 문항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였고, 본 연구자가 유행무관심 2문항을 추가하여 항목별 2문항씩 총 8문항으로 의복유행성향을 구성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6월에 경남지역 소재의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남자대학생 210부, 여자대학생 180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7.0을 사용하여 신체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과 의복유행성향 문항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성별과 체형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상관분석과 의복유행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체형인식과 신체비만도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Table 1에서 살펴보면 여자대학생의 평균키는 162 cm, 남자대학생은 175 cm이며, 평균체중은 여자대학생이 52.6 kg, 남자대학생은 68.9 kg로 나타났다.

BMI지수와 실제 응답자 본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체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교차분석을 통해서 Table 2에서 살펴보면 BMI지수에 의한 객관적 체형이 여자대학생의 경우 마른체형 43명(23.9%), 표준체형 135명(75%), 비만체형 2명(1.1%)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대학생의 경우 마른체형 12명

Table 1. 남, 여 대학생의 키와 체중의 분포

	여자대학생(N=180)				남자대학생(N=210)			
	MIN	MAX	M	SD	MIN	MAX	M	SD
키	149	173	162	4.71	163	190	175	5.04
체중	38	71	52.6	5.69	50	115	68.9	10.11

Table 2. 남, 여 대학생의 주관적 체형과 객관적 체형의 분포

성별	주관적 체형	객관적체형(BMI지수)			n (total %)
		마른	표준	비만	
여자	마른	20(11.1%)	3(1.7%)		23(12.8%)
	표준	23(12.8%)	66(36.7%)		89(49.4%)
	비만		66(36.7%)	2(1.1%)	68(37.8%)
	계	43(23.9%)	135(75%)	2(1.1%)	180(100%)
남자	마른	10(4.8%)	33(15.7%)		43(20.5%)
	표준	2(1.0%)	104(49.5%)	2(1.0%)	108(51.4%)
	비만		30(14.3%)	29(13.8%)	59(28.1%)
	계	12(5.7%)	167(79.5%)	31(14.8%)	210(100%)
합계		55	302	33	390

BMI지수 : 마른; BMI<18.5, 표준; 18.5≤BMI-<25, 비만; BMI≥25.0

(5.7%), 표준체형 167명(79.5%), 비만체형 31명(14.8%)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지각에 의한 주관적 체형은 여자대학생의 경우 마른체형 23명(12.8%), 표준체형 89명(49.4%), 비만체형 68명(37.8%)이며, 남자대학생의 경우 마른체형 43명(20.5%), 표준체형 108명(51.4%), 비만체형 59명(28.1%)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에는 차이를 보였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객관적 체형이 마른체형임에도 표준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2.8%였으며, 표준체형인데 비만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는 36.7%를 차지하는 등 자신의 실제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왜곡된 체형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이정희, 2007; 홍금희, 2006)의 결과와 일치하며 오늘날 매스미디어 등의 영향에 의한 왜곡된 미의 기준으로 인해 마른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남자대학생의 경우는 객관적 체형이 표준체형인데 비만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4.3%, 마른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15.7%로 나타나 각각 36.7%와 1.7%로 나타난 여자대학생과는 다른 분포를 보였다.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체형은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본인의 심리적인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자대학생의 경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 체형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남자대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마른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성별에 따라서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4.2.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4.2.1.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Varimax법으로 직교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과 같이

Table 3.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의 %	Cronbach's α
외모관심	나는 항상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816	4.09	24.34	.840
	내가 항상 멋지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794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777			
	나는 남들이 나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없다.(-)	-.712			
	나는 내 차림새가 적절하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677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658			
체중관심	나는 항상 살이 찢까봐 걱정한다.	.880	2.55	20.61	.851
	나는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다.	.858			
	나는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걱정된다.	.797			
	나는 빠른 시간에 체중을 줄이려고 식사 제한을 한 일이 있다.	.769			
외모만족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792	2.04	17.06	.738
	나는 성적인 매력에 있다.	.73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725			
	옷을 입지 않았을 때의 내 몸매가 더 마음에 든다.	.703			

Table 4.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 의복유행성향의 차이

		성별				t
		여자(N=180)		남자(N=210)		
		M	SD	M	SD	
신체 이미지	외모관심	5.22	.98	4.72	1.06	4.743**
	체중관심	4.14	1.47	3.07	1.51	7.044**
	외모만족	3.71	.94	3.81	1.11	-.971
의복유행 성향	유행의견선도력	4.24	1.24	3.91	1.40	2.417*
	유행혁신성	5.12	1.14	4.67	1.30	3.643**
	의복자신감	5.13	1.04	4.67	1.35	3.803**
	유행무관심	3.06	1.12	3.88	1.49	-6.200**

*: p<.05, **: p<.01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은 '나는 항상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24.34%이며 '외모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항상 살이 찢까봐 걱정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20.61%이며 '체중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17.06%였으며 '외모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3 요인에 대한 전체변량의 분산량은 62%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구한 결과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은 .840, 체중관심은 .851, 외모만족은 .738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4.2.2. 의복유행성향

의복유행성향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구한 결과, 의복유행성향의 하위항목인 유행혁신성은 .883, 유행의견선도력은 .758, 의복자신감은 .652, 유행무관심은 .619로 나타났다. 신뢰성 검증결과 의복유행성향의 모든 하위항목들의 신뢰도가 .60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4.3. 성별과 체형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신체이미지, 의복유행성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신체이미지 하위항목인 외모관심과 체중관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외모와 체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좋은 외모와 체중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모관심과 관련해서는 20대 여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홍금희, 200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외모만족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녀대학생 모두 자신의 외모에 대해 다소 낮은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유행성향의 하위항목에서는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의복자신감에서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들 보다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및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유행무관심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행에 대해 무관심 성향이 남자 대학생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체형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Table 5. 체형에 따른 신체이미지, 의복유행성향의 차이

		체형						F
		마른(N=66)		표준(N=197)		비만(N=127)		
		M	SD	M	SD	M	SD	
신체 이미지	외모관심	5.31 ^a	.95	4.98 ^{ab}	1.00	4.75 ^b	1.11	6.403**
	체중관심	2.14 ^c	1.17	3.51 ^b	1.55	4.39 ^a	1.24	56.345**
	외모만족	3.81 ^a	1.12	3.99 ^a	1.03	3.42 ^b	.88	12.732**
의복유행 성향	유행의견선도력	4.28	1.48	4.04	1.32	4.00	1.30	1.058
	유행혁신성	4.98	1.26	4.92	1.25	4.76	1.25	.856
	의복자신감	4.98	1.32	4.93	1.20	4.76	1.26	.972
	유행무관심	3.37	1.40	3.47	1.37	3.62	1.43	.768

*: p<.05, **: p<.01, a>b>c: Scheffe 검증

Table 6.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의 상관분석

		체형			신체이미지		
		마른체형	정상체형	비만체형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
신체 이미지	외모관심	.149**	.016	-.136**	1		
	체중관심	-.405**	-.036	.362**	.186**	1	
	외모만족	.021	.207**	-.237**	.231**	.061	1
의복유행 성향	유행의견선도력	.072	-.021	-.036	.352**	.104*	.187**
	유행혁신성	.035	.034	-.064	.506**	.174**	.152**
	의복자신감	.038	.036	-.069	.426**	.142**	.266**
	유행무관심	-.043	-.021	.057	-.383**	-.153**	-.087

*: p<.05, **: p<.01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에서는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마른체형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심은 비만체형, 표준체형, 마른체형 순으로 나타나 비만체형일수록 체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홍금희(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외모만족에 대해서는 세 가지 체형 모두 높지 않은 점수를 보여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이 비만체형에 비하여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체형에 비해서는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일 때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복유행성향의 하위항목은 모두 주관적 체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4. 체형, 신체이미지 및 의복유행성향의 관련성

체형,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과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신체이미지와 체형과의 관계에서 외모관심은 마른체형과는 정적인 상관을, 비만체형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마른체형일수록 외모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중관심에서는 마른체형과는 부적인 상관을, 비만체형과는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비만체형은 체중관심에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은 정상체형에서 정적인 상관을, 비만체형에서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정상체형일 때 외모만족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유행성향과 신체이미지 하위변인인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과의 관계에서 유행의견선도력, 의복자신감, 유행혁신성과는 정적인 상관이, 유행무관심과는 부적인 상관이 높게 나타나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높고 외모에 만족할수록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의복자신감에 높은 관련이 있으며,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낮을수록 유행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이미지 하위변인인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성향이 높을수록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및 의복에 대한 자신감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5. 의복유행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경로

성별, 체형, 신체이미지가 의복유행성향에 미치는 영향경로와 영향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7과 Table 8에 나타내었으며, 의복유행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Fig. 1~4에 제시하였다.

4.5.1. 유행의견선도력

유행의견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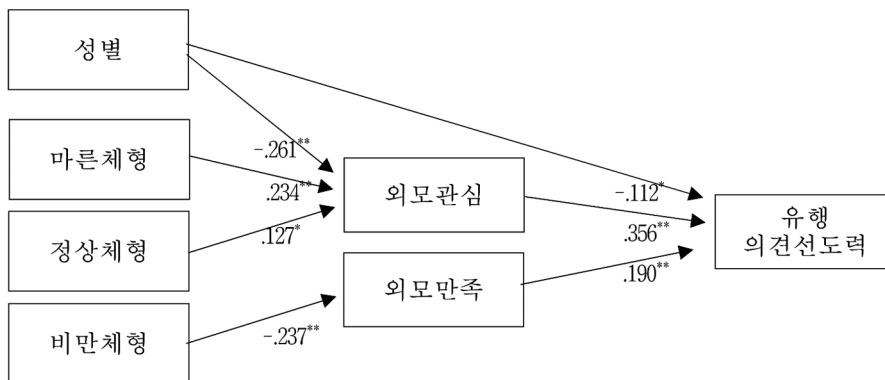


Fig. 1. 유행의견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Table 7. 성별, 체형, 신체이미지가 의복유행성향에 미치는 영향경로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F	R ²	
신체 이미지	외모관심	(상수)	5.549	.174	-	31.830	13.957**	.098	
		성별	-.548	.102	-.261	-5.346			
		마른체형	.654	.153	.234	4.272			
		정상체형	.267	.114	.127	2.338			
	체중관심	(상수)	4.886	.231	-	21.190	56.088**	.304	
		성별	-.892	.136	-.281	-6.567			
		마른체형	-1.273	.189	-.302	-6.727			
		비만체형	.806	.151	.239	5.324			
	외모만족	(상수)	3.936	.062	-	63.456	23.141**	.056	
		비만체형	-.523	.109	-.237	-4.811			
	의복유행 성향	유행 의견선도력	(상수)	2.373	.379	-	6.264	36.961**	.136
			성별	-.278	.115	-.112	-2.412		
외모관심			.420	.056	.356	7.474			
외모만족			.227	.056	.190	4.086			
유행혁신성		(상수)	1.897	.264	-	7.187	133.318**	.256	
		외모관심	.602	.052	.506	11.546			
의복자신감		(상수)	1.831	.307	-	5.966	51.887**	.223	
		외모관심	.455	.055	.385	8.303			
		외모만족	.212	.056	.177	3.822			
유행무관심		(상수)	4.758	.412	-	11.546	45.689**	.191	
		성별	.605	.131	.217	4.608			
		외모관심	-.441	.062	-.332	-7.064			

결과는 Fig. 1과 같다. 의복유행성향의 하위항목인 유행의견선도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체형의 하위항목인 마른체형, 정상체형, 비만체형과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 외모만족이었다. 성별(-.205)은 유행의견선도력에 직접적(-.112)으로 또한 간접적(-.093)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083)과 정상체형(.045)은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 비만체형(-.045)은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356)과 외모만족(.190)은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여자이며, 체형이 마른체형, 정상체형일수록, 비만체형이 아닐수록,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과 외모에 만족할수록 유행의견선도력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행선도력이 높을수록 의복과 신체에 만족한다고 한 결과(이연희, 1995)와 일치하였다.

4.5.2. 유행혁신성

유행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의복유행성향의 하위항목인 유행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체형 중 마른체형과 정상체형, 신체이미지의 외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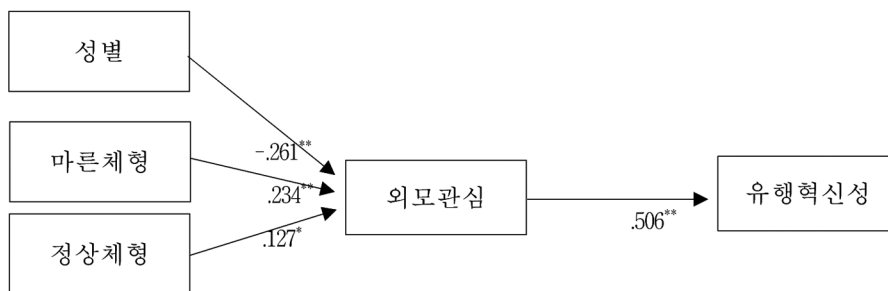


Fig. 2. 유행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Table 8. 의복유행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효과 분석

의복 유행성향	변인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유형 의견선도력	성별	-.205	-.112	-.093	
	체형	마른체형	.083	-	.083
		정상체형	.045	-	.045
		비만체형	-.045	-	-.045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356	.356	-
외모만족		.190	.190	-	
유형 혁신성	성별	-.132	-	-.132	
	체형	마른체형	.118	-	.118
		정상체형	.064	-	.064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506	.506	-
의복 자신감	성별	-.100	-	-.100	
	체형	마른체형	.090	-	.090
		정상체형	.045	-	.045
		비만체형	-.042	-	-.042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385	.385	-
외모만족		.177	.177	-	
유형 무관심	성별	.304	.217	.087	
	체형	마른체형	-.078	-	-.078
		정상체형	-.042	-	-.042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332	-.332	-

심이었다. 성별(-.132)은 유행혁신성에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118)과 정상체형(.064)은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506)은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여자이며, 체형이 마른체형, 정상체형일수록,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유행혁신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와 신체에 관심이 높을수록 유행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선행연구(이영운, 강혜원, 1982; 정찬진, 김옥진, 198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4.5.3. 의복자신감

의복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의복유행성향의 하위항목인 의복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체형의 하위항목인 마른체형, 정상체형, 비만체형,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 외모만족이었다. 성별(-.100)은 의복자신감에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090)과 정상체형(.045)은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 비만체형(-.042)은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385)과 외모만족(.177)은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여자이며, 체형이 마른체형, 정상체형일수록, 비만체형이 아닐수록,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과 외모만족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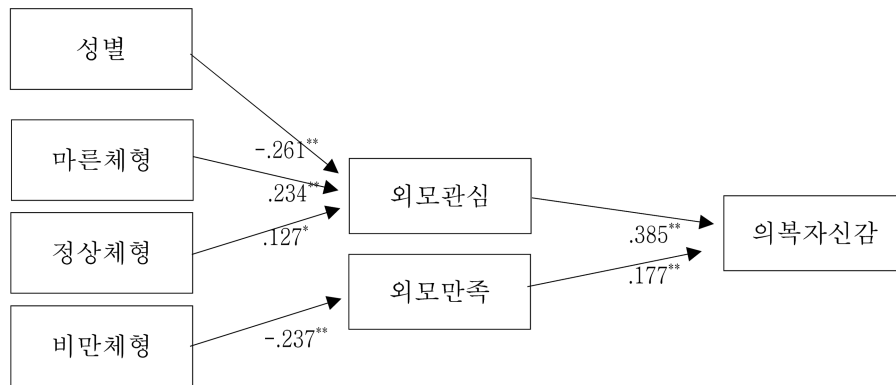


Fig. 3. 의복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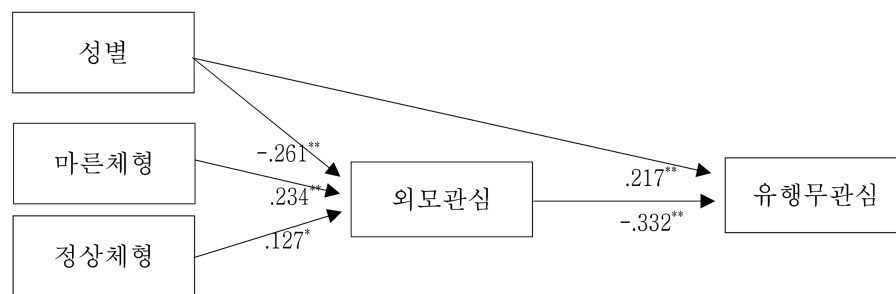


Fig. 4. 유행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5.4. 유행무관심

유행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의복유행성향의 하위항목인 유행무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체형 중 마른체형과 정상체형,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이었다. 성별(.304)은 유행무관심에 직접적(.217)으로 또한 간접적(.087)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078)과 정상체형(-.042)은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332)은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남자이며, 체형이 마른체형, 정상체형이 아닐수록,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 점수가 낮을수록 유행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대학생과 외모에 관심이 낮을수록 유행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마른체형과 정상체형은 외모에 관심이 있으며, 비만체형은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의복자신감 성향이 높으며, 외모에 만족할수록 유행의견선도력, 의복자신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유행의견선도력 성향이 높고, 남자대학생은 여자대학생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으며, 유행에 무관심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몸무게와 키로 산출되는 객관적 체형과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체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별과 체형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의 차이 및 이들 변인들을 의복유행성향과 관련시켜 분석하여 이들 변인들이 의복유행성향에 미치는 영향경로 및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자대학생의 경우 객관적 체형이 마른체형임에도 표준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표준체형인데 비만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객관적 체형이 표준체형인데 비만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와 마른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다소 비슷한 분포를 보여 여자대학생과는 체중 인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여자 대학생이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었다.

2. 신체이미지는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으로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성별과 체형에 따른 신체이미지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외모와 체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마른체형이 비만체형에 비하여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비만체형일수록 체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일 때 다소 외모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성별과 체형에 따른 의복유행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의복자신감에서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 보다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및 의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남자대학생은 여자대학생 보다 유행에 대해 무관심 성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성별, 체형 및 신체이미지와 의복유행성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자 대학생이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일수록 외모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비만체형은 체중관심에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표준체형은 외모만족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유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성향이 높을수록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및 의복에 대한 자신감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4. 의복유행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행의견선도력은 여자대학생인 경우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심, 외모만족 성향이 높을수록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유행혁신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의복자신감에서는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행무관심에는 외모관심이 낮은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인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성별과 체형은 의복유행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체형은 신체이미지를 매개로 의복유행성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자대학생이며 마른체형이거나 표준체형일 때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유행의견선도력, 유행혁신성, 의복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모에 만족할수록 유행의견선도력과 의복자신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비만체형은 외모에 만족하지 않는 성향이 높고, 외모불만족은 유행무관심으로 연결되었다. 즉, 성별과 체형 및 신체이미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의복유행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의복유행성향은 의복스타일 선호와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유행상품 개발 시 체형과 신체이미지를 고려하여 세분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비만체형의 경우는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의복으로 체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의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올바른 시각으로 자신의 체형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체형의 특성과 형태를 고려한 유행하는 의복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많은 소비자에게 신체적인 만족감 및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의복유행성향의 영향요인인 체형과 신체이미지의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체형인식과 자신의 신체이미지는 심리적인 요인 및 연령과 사회, 문화적 현상에 따라 변화되어 의복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요

인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경남지역의 남,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원. (1996).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150.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남윤자, 이승희. (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36-747.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박정은, 정수진, 강경자. (2005). 신체만족도, 의복태도에 따른 여대생의 충동구매와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985-994.
 배정주. (1989). *유행선도력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 (2006).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 서울.
 송경자. (1998).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요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심정희, 박수진. (2007). 중년여성의 체형에 따른 의복태도. *한국의류학회지*, 31(1), 33-43.
 이연희. (1995). *유행선도력과 의복 신체만족도와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윤, 강혜원. (1982).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한국의류학회지*, 6(2), 17-24.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2003)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 61.
 이정순, 한경희 (2007) 여대생의 체형인식이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1(2), 145-154.
 이정순. (2007). 여대생들의 지수치에 의한 체형 집단별 실제체형과 신체인식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11(5), 100-109.
 이정임, 남윤자. (2003). 체형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4), 372-378.
 이정희. (2007). 체형과 스트레스가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중년여성과 여대생의 비교 연구-. *복식문화연구*, 15(6), 1084-1099.
 정찬진, 김옥진. (1988). 의복의 유행스타일 수용과 선택기준 및 유행정보원의 활용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351-361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조윤정, 고애란. (2001). 유행선도력에 따른 소비자 세분집단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추구태택 특성. *소비자학연구*, 12(3), 171-187.
 조윤주, 이정란. (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262-269.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 Pergamon Press, pp. 125-130.
 Compton, N. H. (1964). Body Image Boundaries in Relation to Clothing Fabric and Design Preference of a Group of Hospitalized Psychotic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6(1), 40-44.
 Creekmore, A. M.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f, Research Report 239*. Michigan: Technical Bulletin,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acmillan.
 Kim, M. J., & Schrank, H. L. (1982). Fashion Leadership: A Two-Cultural Study-Part 1: Fashion Leadership Among Korean College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3), 227-234.
 Mable, H. M., Balance. W., & Galgan, R. (1986).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2), 907-911.
 Meijboom, A., Jansen, A., Kampan, M., & Schouten, E. (1999). An Experimentalt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oncern about Body Shape and Weight in Restrained Ea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5(3), 327-334.
 Roach, M. E. & Eicher, J. B. (1992).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N.Y.: John Wiley & Sons(eds).
 Rogers, E. M. (1983). *Diffusion of Innovations*. (3rd ed). N.Y.: The Free Press.
 Shim, S., Kotsiopoulos, A., & Knoll, D. S. (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Youn, S., Bae, K., Lee, J., Kwon, K., & Lee, K. (2009). Influence of Body Image and Clothing Involvement on Fashion Leadership and Experience with Appearance. *Proceedings of 2009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Bellevue, Washington, USA*. from http://www.itaaonline.org/downloads/CB-Youn-Influence_of_Body_Image.pdf

(2010년 8월 30일 접수/2010년 10월 10일 1차 수정/
 2010년 11월 11일 2차 수정/2010년 11월 11일 게재확정)